

寫經院과 廉丞益 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A Study on the set the seven roalls of the Saddarma Pundarika Sutra
Prayed by Yeom Seong-Ik and Script Center

권 희경(Hee-Kyung Kyon)*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결론 |
| 2. 寫經院, 金·銀字院에 관한 기록 | <참고문헌> |
| 3. 廉丞益發願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 |

<국문초록>

사경은 南溪院 석탑의 출토품으로 1915년 南溪院石塔을 開城市 德岩洞의 원 위치로부터 경복궁으로 옮길 때 발견된 紺紙銀泥寫經의 廉丞益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卷子本으로 세로 31.1cm이며, 표지화와 變相畫가 안팎을 이루고 있는데 폭은 27.2cm이다.

이 사경은 또한 1행 14자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표지화·변상화의 양식과 더불어 고려국왕발원 금·은자사경의 양식과 같다.

이 사경을 발원한 인물은 충렬왕대의 권신이던 염승익이다. 염승익은 『高麗史』 『高麗史節要』에 의하면, 기인을 동원하여 지은 자신의 집을 大藏經寫經所 金字大藏寫經所로 내놓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경은 염승익이 자신과 그 일가권속의 복락을 빌기 위해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를 金字大藏寫經所에서 제작하고, 忠烈王 9년 南溪院石塔을 수리할 때 탑에 함께 봉안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경의 가장 중요한 점은 『高麗史節要』의 기록처럼 금자대장소로 내놓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금자대장소란 장소적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금경사와 더불어서 금자원과의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경이 충렬왕대 고려국왕발원 금·은자사경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개인발원사경이라 할지라도 金字大藏寫經所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金字院(혹은 銀字院)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점을 통해 남겨진 기록들과 발문을 중심으로 사경원 금·은자원의 성격을 밝히는데 힘썼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ript centers golden and /or silver letter center in Koryo Dynasty and a set of seven rolls of the script written in silver letter on blue paper prayed by Yeom Seong-Ik were studied with focusing on the referred records and an epilog of the script.

This script was discovered from Namgewon's stone stupa, when it was transported from original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 hkkon39160@hanmail.net

site of Daekam Dong, Kaiseong city to Kyungbok Palace in 1919. This script prayed by Yeom Seong-Ik which was written in silver paste on blue papers is a set of seven rolls. the size is 31.1 cm (length) x 27.2 cm (width). The cover painting and Beonsangwha(Buddha's preaching picture) were painted out and in the roll cover.

This script was written with 14 letters on a line whose characteristic with the style of cover painting and Beonsangwha is similar to the golden and silver scripts prayed by kings of Koryo Dynasty. The person who prayed this script was a powerful vassal of the king Chungyeol period, Yeom Seong-Ik. According to Koryosa(Koryo History) and Koryosa jeolyo(summarized Koryo History), it is described that Yeom Seong-Ik offered his own house which was built by a group of strangers as a 'Writing Place for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and the place of the script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at this script a set of seven rolls of the script of Saddharma Pundarika-Sutra was written to pray for himself as well as his families'fortune at the place of golden script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and enshrined it in the Namgaewon stone stupa when the stupa was repaired in 9th year of king ChungYeol.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point should be centered on that he offered his house as a writing place for golden script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as recorded in Koryosa Jeolyo.

The writing place for golden script of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should be emphasized on the meaning of its site. It is an important key point to clear that Kumjawon(Golden letter center) would be different from Kumjadejangso(the writing place of golden script for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with Kumkyungsa(Golden script place).

As considereing the point that this scrip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golden and/or silver scripts which prayed by king Chungyeol in Koryo Dynasty as they were, even though this script was manufactured by individual praying, this script follwed in the style of Kumjawon(golden letter center) and/or Unjawon(silver letter center) as they were, because this script was written in the place of the golden script for the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utras.

In this paper all of the points described above with focusing on the referred records and an epilog of this script were collectively considered to make clea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ript centers, golden and/or silver letter.

1 서론

고려의 寫經 중 중요하지 않는 寫經이 없겠지만, 廉丞益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卷本 1部는 고려시대의 寫經院과 金字院 銀字院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경이다.

廉丞益發願 寫經인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제작과 사경원에 관한 『高麗史』 『高麗史節要』의 기록에 관해서는 이미 1986년의 『高麗寫經의 研究』에서도 언급한바 있으며,

1999년 6월 『書誌學研究』 제 17집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에서 간단하게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高麗史』 기록과 『高麗史節要』에 기록된 廉丞益의 집이 大藏經寫經所 혹은 金字大藏寫經所가 된 내용과 廉丞益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제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 본데 불과하며, 또한 1986년 『高麗寫經의 研究』라는 책을 내기 전에 직접 경전을 조사한바 있으나, 그때는 엉겨있는 두루마리로 7다발을 본데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로 표지화와 변상화 제1권에 해당하는 경전 일부를 조사한 후, 이 경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경전과 寫經院의 관계를 재론코자 한다. 그리고 고려 寫經院 혹은 金字院·銀字院의 성격과 金·銀字 寫經에 대한 고찰 역시 『高麗寫經의 研究』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寫經院의 문제와 더불어 廉丞益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제작 과정을 고찰코자 함은 고려의 寫經院은 어떠한 성격은 띠고 있으며, 『高麗史』 『高麗史節要』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忠烈王代의 金字大藏寫經所, 金字院 혹은 金經社는 과연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가 통해서 고려국왕 발원사경과 친원계의 권신들이 발원한 사경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려국왕발원 金·은자 사경과 더불어 고려의 사경원과 金·은자원 연구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이 廉丞益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가 아직도 수리되지 않은 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²⁾을 알리고자 하는 데 이 논문을 쓰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2 寫經院, 金·銀字院에 관한 기록

『高麗史』에 의하면 명종 11년(1181) 정월 寫經院에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寫經院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高麗史』 기록에 나타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金字大藏寫經所, 金字院 혹은 金經社라는 기록은 이 보다 훨씬 뒤인 충렬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1)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미진사, 1986, pp.241-256.

2)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현재의 일년예산으로는 廉丞益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타나고 있으며,³⁾ 銀字院이라는 기록도 『高麗史』 列傳의 충렬왕 후비 淑昌院妃 金氏조와 충숙왕 원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⁴⁾

그러나 寫經院은 명종 11년의 이 기록보다 더 앞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朝鮮時代 世祖年間에 刊經都監에서 번각된 것으로 알려진⁵⁾ 松廣寺의 聖寶博物館 소장의 『妙法蓮華經續述』 제1·2권 合本の 尾書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壽昌元年 乙亥年 高麗國 大興王寺 奉宣 彫造 秘書省楷書同正 臣南宮禮 書
壽昌元年 乙亥年 高麗國 大興王寺 奉宣 彫造 寫經院書者 臣柳俊樹 書

라는 기록이 있어⁶⁾, 寫經院은 이미 壽昌元年, 고려 獻宗 元年(1095)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해서에 능통한 인물에게 秘書省의 楷書同正職이라는 虛職을 주어 興王寺에서 경전을 寫成토록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서 寫經院의 書者인 柳俊樹와는 달리 秘書省의 南宮禮는 虛職인 楷書同正職을 받아 板下本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시켜 秘書省의 성격을 『高麗史』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高麗史』에 나타난 秘書省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종 9년(990) 梁의 武康人 沈隱士 즉 沈約이 저술한 2만 여권의 서적을 베껴서 秘書省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고, 숙종 11년(1106)에는 秘書省에서 新刊한 『禮記正義』 70본과 『毛氏正義』 40본을 왕에게 올리니 왕이 명하기를 御書閣에 장치하고 여분은 문신들에게 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숙종 6년에 秘書省에 文籍의 板本이 쌓이고 쌓여서 훼손됨으로 舖를 國子監에 두어 이를 장치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고종 41년 秘書省은 齋醮祭饗의 문서를 맡았으므로 매월 1일 入直하여 沐浴齋素하고 한 달이 지나야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만약 翰林院, 寶文閣, 同文院, 御書院이 윤번으로 숙직하면 飲酒食肉하고 穢惡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秘書省에서 돌아가며 숙직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니 금해달라는 상소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 3) 『高麗史』 列傳 第三十六卷 廉丞益. 『高麗史節要』 第二十卷 忠烈王 7年. 『高麗史』 世家 第二十九卷 忠烈王 9年. 『高麗史』 世家 第三十卷 忠烈王 14年, 15年.
- 4) 『高麗史』 列傳 后妃二. 『高麗史』 世家 第三十四卷 忠肅王 원년.
- 5) 『國寶』 書藝 I · 典籍 II, 藝耕産業社, 1986, pp.284-285.
- 6) 千惠鳳編著, 『國寶』 24, 藝耕産業社, 1986, pp.284-285.
장진기, 김성우, 권희경, 『송광사』 대원사, 1994, pp.109-110.

이러한 『高麗史』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秘書省에서는 많은 판본이 조성되었고, 그러므로 楷書에 능통한 大家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楷書의 명인들이 임시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점 또한 짐작 할 수 있다.

松廣寺 성보박물관 소장의 『金剛般若經疏開玄鈔』에도 4·5·6권의 尾書에서도 楷書의 名大家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 볼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壽昌四年 戊寅歲 高麗國大興王寺 奉宣 彫造 將仕郎尙衣直長同正 臣王鼎書(제4권의 尾書)

壽昌四年 戊寅歲 高麗國大興王寺 奉宣 彫造 將仕郎尙舍直長同正 臣李衍書(제5권의 尾書)

壽昌四年 戊寅歲 高麗國大興王寺 奉宣 彫造 將仕郎司宰主簿同正 臣李彪書

講華嚴經 興王寺 通奧大師 賜紫沙門 臣尙源 校勘

講華嚴經 佛日寺 慈應大師 賜紫沙門 臣融觀 校勘

講華嚴經 佛日寺 慧炤大師 賜紫沙門 臣滋顯 校勘

天順五年 辛巳年 朝鮮國刊經都監 奉教重修(제6권의 尾書)⁷⁾

에서 살펴 볼 때, 『金剛般若經疏開玄鈔』 제4권의 서자 王鼎은 從九品 下에 해당하는 掌服署의 尙衣局의 將仕郎을 同正職(임시직)으로 받았다. 掌服署의 尙衣局은 御衣를 供奉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穆宗조에 신설되어 文宗조에 와서 文散階가 바뀌었다.⁸⁾ 『金剛般若經疏開玄鈔』 제5권의 書者 李衍은 司設署의 尙舍局의 將仕郎이라는 동정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司設署의 尙舍局은 목종조에 신설된 후, 문종조에 문산계가 바뀌었다.⁹⁾ 『金剛般若經疏開玄鈔』 제6권의 書者 李彪는 司宰寺의 主簿라는 同正職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司宰寺는 文宗때 정하였고, 主簿는 從七品이었다.¹⁰⁾

이와 같이 大興王寺의 藏經都監에서는 각 부처의 將仕郎 혹은 主簿라는 虛職의 同正職을 주어 楷書의 명인들에게 板下本을 寫書토록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寫經과 版經을 위해 楷書의 名大家의 수요가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興王寺가 이처럼 국가적인 사업인 秘書省의 일을 맡아 했다

7) 강진기, 김성우, 권희경, 『송광사』 대원사, 1994, pp.110-111.

8) 『高麗史』 志 第三十一卷 百官二.

9) 『高麗史』 志 第三十一卷 百官二.

10) 『高麗史』 志 第三十卷 百官一.

는 점을 감안할 때, 寫經院도 興王寺내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高麗史』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고려 왕실과 金·銀字經에 관한 기록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寫經院 혹은 金字院 銀字院이 소재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문종 31년(1077) 金字의 『華嚴經』이 새로 제작되어 왕이 興王寺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나¹¹⁾, 肅宗 6년 金字의 『妙法蓮華經』이 사성 된 것을 경찬하기 위해 왕이 日月寺에 행차했다는 기록¹²⁾, 『高麗史』世家 肅宗 6년 왕이 洪圓寺에 행차하여 大藏堂 및 九祖堂을 낙성했다는 기록, 동왕 7년 5월에는 銀泥로 쓴 『瑜珈顯揚論』을 경찬하기 위해 玄化寺에 행차했다는 기록¹³⁾, 의종 10년(1157)에 의종이 후사가 없어 비 김씨와 더불어 맹서하기를 만약 아들을 낳으면 金·銀字華嚴經 4부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마침내 아들을 낳자 약속했던 金·銀字華嚴經 4부 중 2부를 寫成하여, 興王寺의 弘敎院을 수리하여 이를 보관토록 했다는 기록 등은¹⁴⁾ 寫經院이 興王寺 뿐만 아니라 여러 사찰 내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高麗史』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충렬왕 이전까지는 상술한바와 같이 『高麗史』 기록에서 明宗 11년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寫經院이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각 大刹에서 金·銀字寫經이 제작되어 왕이 그 사찰로 행차했다는 기록은 국왕발원의 金·銀字寫經이 그 대찰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寫經院 혹은 金字院 銀字院이 그 대찰에 부설되어 있었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寫經院 혹은 金字院 銀字院이 대찰에 부설되어 그곳에서 金·銀字寫經이 사성 되었다 하더라도 『高麗史』에서 보이는 왕의 행차와 관련된 기록에서 寫經院 혹은 金字院 銀字院보다는 大刹의 寺刹名을 더 앞세울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寫經院이라든가 金·銀字院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 아니더라도 金字·銀字寫經에 관한 기록이나 이들과 관련된 기록 또한 상당히 많으니,¹⁵⁾ 이러한 기록들에 의해 고려왕실의 金·銀字寫經의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1) 『高麗史』世家 第八卷.

12) 『高麗史』世家 第十一卷

13) 『高麗史』世家 第十一卷.

14) 『高麗史』世家 第十八卷.

15) 전개서, 『高麗寫經의 研究』, pp.248-250.

왕실 발원의 金·銀字寫經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高麗史』에 의하면 文宗 12년 11월 庚午에 靖宗의 魂堂에 있던 金·銀器와 北朝에서 조제예물인 繪綵를 사용하여 藏經을 化成하여 정종을 追福하라고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靖宗 때는 魂堂의 金·銀器를 녹여 金·銀字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金·銀字寫經이 왕실에서 만들어진 기록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¹⁶⁾ 이러한 金·銀字寫經은 명종 11년의 기록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개 寫經院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廉丞益과 寫經院에 관련하여 『高麗史』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列傳 第三十六卷 廉丞益조에 「廉丞益이 일찍이 사사로이 其人 50인을 사역하여 자신의 집을 짓고, 공주의 꾸지람을 두려워하여 이를 헌납하여 大藏經의 寫經所로 삼도록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高麗史節要』에는 충렬왕 7년 3월에 「승지 廉丞益이 그 집의 일부를 金字大藏寫經所로 삼기를 청하니 이를 왕이 허락하였다. 처음에는 廉丞益이 왕이 총애함을 믿고 사사로이 其人을 동원하여 이 집을 지었는데 공주에게 문책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런 청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위의 두 기록을 종합 해 볼 때 廉丞益이 그의 집 내에 其人 50인을 동원하여 새집을 지었으나, 齊國大長公主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새로 지은 이 집을 大藏經寫經所 혹은 金字大藏寫經所로 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史』 기록에는 大藏經寫經所라고 칭한 데 비해 『高麗史節要』에서는 金字大藏寫經所라고 칭하고 있다. 『高麗史』의 기록이 大藏經寫經所라고 칭한데는 寫經院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고, 『高麗史節要』의 金字大藏寫經所라고 칭한데는 金字院이라는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상술한바와 같이 충렬왕대 이후 金字院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는 데, 이는 통칭하여 寫經院이라고 칭하던 고려전기, 중기와는 달리 충렬왕 이후 金字院 銀字院으로 구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高麗史』는 寫經院이라는 관점에서 大藏經寫經所라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두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大藏經寫經所나 金字大藏寫經所라는 명칭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영되고 있던 대찰의 寫經院과 구별하여 명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高麗史』의 大藏經寫經所나 『高麗史節要』의 金字大藏寫經所라는 명칭은 장소로서의 의미가 보다 강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高麗史』에는 충렬왕 9년(1283) 왕이 공주와 더불어 金字大藏院에서 승려들을 대접하

16) 전개서, 『高麗寫經의 研究』, pp.243-245.

였다는 기록이 있고,¹⁷⁾ 동왕 14년(1288)5월 庚戌에 왕과 공주가 金經社로 행차했다는 기록과¹⁸⁾ 동왕 15년(1289)에는 왕이 金字院에 행차하여 대장경이 사성되었음을 경찬했다는 기록이 있다.

염승익이 제국대장공주를 두려워하여 대장경사경소 혹은 금자대장사경소라는 명칭으로 내놓은 새 집이 金字院과 관련된 고려사의 최초의 기록에 해당한다. 또한 충렬왕 9년에 金字大藏院이라는 기록이 동왕 14년에는 金經社로 기록되다가, 15년에는 다시 金字院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기록들에서 나타난 명칭의 변화는 金字院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충렬왕 9년 기록의 金字大藏院이나 15년 기록의 金字院은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金經社는 역시 이들과 차별하여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충렬왕 14년에 金經社로 기록하던 것이 15년에는 다시 金字院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충렬왕 9년과 14년에는 5년이란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그렇게 명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충렬왕 14년에 金經社로 명명되었던 것이 15년에 갑자기 金字院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金經社와 金字院의 규모나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金字大藏院이나 金字院이란 명칭은 寫經院이란 명칭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고려왕발원의 사경들이 제작된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金經社는 ‘社’자로 보아서 結社와 관련되었던 곳으로 보이며, 결사가 있는 후 金字寫經을 寫成했던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求禮 華嚴寺의 華嚴經 石壁 緣起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도 화엄경 결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憲康王을 追福하기 위한 것이었다. 唐 僖宗 光啓 2년(886), 定康王 1년에 朝臣과 중친들이 모여 헌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화엄경 결사를 한 후, 군신들이 임금에게 권유하여 사경으로서 薦福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⁹⁾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金經社는 결사와 관계된 금자사경제작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금자원의 성격과 더불어 은자원의 기록을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다.

銀字院이라는 기록은 상술한바와 같이 『高麗史』 世家의 기록에 나타나기는 忠肅王 원년(1314)에 처음이며, 正月 庚寅에 왕이 銀字院의 승려 萬恒을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러나 銀字院은 이 보다 앞서 그 존재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이 있으니, 『高麗史』 列

17) 『高麗史』 世家 第二十九卷.

18) 『高麗史』 世家 第三十卷.

19) 吳世昌, 『槿域書畫徵』 昭和 3년 5월 5일, 啓明俱樂部, p.7, 金一條.

傳 后妃 忠烈王의 淑昌院妃 金氏조에 淑昌院妃가 어미의 喪이 있을 때, 宰樞에게 향연하고 銀子院에서 法會를 設하였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高麗史』 列傳의 기록으로 충렬왕 때 이미 銀子院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忠烈王대의 銀子院의 존재는 기록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고려국왕발원의 사경 『空羈索神變眞言經卷第十三』, 『文殊師利問菩提經』, 『佛說菩薩本行經卷下』, 『菩薩善戒經卷第八』, 『顯識論』 들로서 충분히 입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²⁰⁾ 이에 비해 金字院에서 제작된 고려국왕발원사경은 『佛說雜藏經』의 殘卷이 존재할 뿐이다.²¹⁾

3 廉丞益發願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廉丞益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卷子本으로 紺紙銀泥寫經이다. (<그림 1>) 세로 31.1cm이다. 표지화(<그림 2>)의 폭은 27.2cm이다. 變相畫의 폭도 표지화의 폭과 같다. 표지화의 향좌 위쪽으로 二重의 銀泥 細線의 장방형 구획 속에 금니로 표제가 쓰여져 있다. 경전의 天地界線과 行間界線은 金泥이다. 1행 14자로 쓰여져 있다.

표지화는 연판과 당초는 은니로 그려져 있고, 당초줄기에는 금니의 세선이 2줄로 그어져 있고, 연화는 윤곽선은 은니로 그려지고 그 속은 금니로 채워져 있으며, 화심의 꽃술은 은니의 윤곽선 속에 금니의 점선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향기는 원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곽선은 은니로 그려지고 그 속은 금니세선으로 메워져 있다. 이러한 표지화와 안팎을 이루고 있는 卷首의 첫머리에는 신장상이 그려져 있다. 경전의 길이 대로 이중의 금니 세선을 좌우로 그리고 있으며, 그 속에 금니로 당초문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이중의 금니 세선 속에 당초가 그려진 부분으로부터 神將像[도3]이 그려지고 있다.

神將像은 중앙이 결손 되어 명확한 세부 형태는 알 수 없으나, 蓮華踏座를 밟고 서 있는 분노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신장상의 아래위는 금니의 이중세선이 그어져 있고, 향우에는 금니의 세선이 외줄로 그어져 있다.

20) 전계서, 『高麗寫經의 研究』, pp.384-388.

21) 전계서, 『高麗寫經의 研究』, pp.388.

이 사경은 南溪院 석탑의 출토품으로²²⁾ 1915년 南溪院石塔을 開城市 德岩洞의 원 위치로부터 경복궁으로 옮길 때 발견되었다. 7권의 사경이 전부 물에 젖어서 엉겨 붙어서 펴 볼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하다. 다만 제1권의 卷首만을 따로 떼어서 보수가 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으나, 중간 부분이 박락된 상태이다. 이 사경의 제7권에는 발원문(<그림 4>)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特爲

國王宮主無諸災厄兵戈潛消國土

大平兼及已身不逢九禪速脫

三界盡未來作大佛事亦願

一門眷屬無諸病苦無盡法界

生亡共證菩提者

二月 日誌

正義大夫密直司右丞興威衛上將軍判大府知軍府簿司事 廉丞益

願我臨欲命終時 兼除一切諸障礙

面見彼阿彌陀 卽得注生安樂利

兼及妻氏永寧郡夫人魯氏分身

女子小男等厄消除壽命延長

成就興授願²³⁾

위의 발원문에서는 國王과 宮主가 여러 가지 재액에서 자유롭기를 빌고 있고, 나라가 안녕하기를 빌고 있으나, 실은 염승익이 자신과 그의 아내 노씨와 아들딸들이 살아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빌고 죽어서는 극락 왕생 할 수 있기를 빌어 만들어진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경이야말로 철저히 염승익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해 寫成된 개인 발원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경은 다른 개인 발원 사경과 근본적으로 틀리는 점이 있으니,

22) 일제강점기에 기록한 작품 카드에 의하면 開豐郡 開國寺 7층 석탑 중에서 출토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朝鮮古蹟圖譜』 第六冊에는 京畿道開城郡青郊面 廢開國寺 七重石塔에서 출토되었다고 적혀 있다.

23) 舊朝鮮總督府, 昭和 四十八年發行, 『朝鮮古蹟圖譜』 第六冊, pp.736.

이 경전이 1행이 14자로 쓰여졌다는 점과 표지화가 高麗國王發願寫經의 표지화와 같고, 변상화 역시 경전의 내용을 정경적으로 그린 개인발원사경의 變相畫(<그림 5>)와는 달리 神將像만이 그려진 점이 高麗國王發願寫經들의 양식과 같다는 점이다.

표지화 역시 高麗國王發願寫經인 호암미술관소장의 『不空羂索神變陀羅尼經』 제13권(<그림 6>)이나²⁴⁾ 日本 國立京都博物館 소장 『阿育王太子法益壤目因緣經』²⁵⁾(그림 7>)과 양식적으로 같고, 神將像도 『不空羂索神變陀羅尼經』 제13권[도8]과 京都博物館 소장의 『文殊師利問菩提經』(<그림 9>)과 같아서 고려국왕발원 사경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개인발원사경으로서 현존하는 유품 중에는 가장 오래된 작품은 현재 日本 京都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寶積寺 소장본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와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로 구성된 사경이다. 이는 충렬왕 20년(1294)에 제작된 첩자본으로 표지화(<그림 10>)와 변상화(<그림 11>)가 염승익발원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와는 완전히 틀린다.

4개의 연화문이 그려진 보적사본의 사경표지화는 고려국왕발원 표지화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염승익발원 사경과는 완전히 틀려, 4개 혹은 3개의 연화문과 이들 연화문을 지그재그로 감고 있는 당초문으로 구성된 충렬왕 이후의 많은 개인발원사경 표지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제1권에 그려진 변상화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4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변상화는 석가설법도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제1페이지는 신장상이 그려지고, 제2페이지부터 제4페이지까지 석가권속도가 그려져 있다. 신장상은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 자나 그 경전을 펼쳐 읽는 자 모두에게 복락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어 제1페이지에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왕발원사경들의 신장상과는 크기가 완전히 틀린다. 이에 비해 염승익발원의 사경은 신장상 역시 국왕발원사경 신장상들과 크거나 양식에 있어서 같다는 점도 유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고려시대의 개인발원사경 중에서 이 사경만이 유독 14자로 쓰여졌다는 점은 이 사경이 金字院 혹은 銀子院에서 쓰여졌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특징이다.

보적사본 사경을 비롯한 모든 개인발원사경이 모두가 1행 17자로 쓰여져 있다(<그림

24) 전개서, 『高麗寫經의 研究』, pp.384.

25) 전개서, 『高麗寫經의 研究』, pp.391.

12>)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역시 염승익발원의 사경은 개인발원사경이면서도 고려국왕발원사경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렬왕 이후 제작된 고려국왕발원의 金·銀字寫經은 전부 1행 14자의 권자본이다. 1행 14자본은 北宋시대 개관된 舊本藏經이 1행 14행로 구양순체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를 모본으로 한 2차에 걸친 고려장경 역시 1행 14자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舊本藏經은 고려왕실의 대장경 사업의 공식적인 모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사경의 경우도 舊本藏經의 스타일인 1행 14자로 쓰여졌을 것이다.

왕실의 이러한 사경스타일과는 달리 현재 남아 있는 거의 대부분 개인 발원 사경은 전부가 1행 17자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중앙에서 제작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몇몇 작품에는 1행 17자 혹은 16자가 섞여 있는 사경도 없지 않으나, 거의 대부분이 1행 17자로 쓰여져 있다.

1행 17자로 쓰여지는 것은 唐寫經의 전통이기는 하나, 개인발원 사경이 唐 寫經의 양식을 따랐다고보다는 고려국왕발원 사경의 스타일인 1행 14자와의 차별을 위해서 취해진 양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1행 14자로 쓰여진 고려국왕발원의 金·銀字寫經은 충렬왕 이후 金字院 銀字院에서 寫成한 寫經 스타일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 할 때, 廉丞益 발원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현재로서는 발원문에서 연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기는 하지만, 忠烈王 7년에 내놓은 그의 집의 金字大藏寫經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심증을 굳혀준다.

廉丞益은 충렬왕의 충신으로 趙仁規의 딸을 아내로 맞아 세력을 형성했던 인물이다.²⁶⁾ 충렬왕 6년 2월에는 왕이 공주와 더불어 玄和寺에 행차하여 承旨 廉丞益에게 명하여, 佛殿을 짓게 하였다고 하며, 7월에는 廉丞益의 집으로 왕이 移御 했다고 하니²⁷⁾, 그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충렬왕 6년까지는 아직 『妙法蓮華經』 7권본 1부가 제작되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²⁸⁾ 그 이유는 앞서도 밝힌바와 같이 이 사경이 바로 金字院(혹은 銀字院)의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廉丞益은 忠烈王 7년 그의 집의 金字大藏寫經所로 내놓은 이후, 忠烈王 9년에는 孔愴

26) 『高麗史』 列傳 제36권. 廉丞益조.

27) 『高麗史』 世家 제29권, 忠烈王二, 忠烈王 6년조.

28) 전개서, 『高麗寫經의 研究』, pp.398.

와 함께 玄和寺와 南溪院石塔을 수리했다는 『高麗史』 기록을 종합해볼 때, 염승익은 자신이 지은 집을 金字大藏寫經所로 내 놓은 뒤, 자신과 그 일가권속의 복락을 빌기 위해 『妙法蓮華經』7권본 1부를 金字大藏寫經所에서 제작하고, 忠烈王 9년 南溪院石塔을 수리할 때 탑에 함께 봉안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高麗寫經중 1행 17자로 쓰여진 개인발원 사경의 경우도 거의가 사찰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경이 행해지는 일에는 일정한 의식이 필요하므로 發願者나 施主者가 親元系의 인사나 지방호족이라 할지라도 사경을 제작하는 일은 사찰에서 행하였을 것이고 그 일을 통괄하는 인물도 승려였다는 것은 고려사경의 발원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²⁹⁾

그러나 廉丞益 발원의 이 『妙法蓮華經』7권본 1부 사경은 廉丞益에 의해 발원된 사실만이 적혀 있다. 이 『妙法蓮華經』7권본 1부 사경은 양식적인 측면에서 고려국왕발원 銀字寫經들과 같아 金字大藏寫經所에서 제작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며, 金字大藏寫經所에서 고려국왕발원의 사경들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29) 전계서, 『高麗寫經의 研究』, pp.401-446.

日本 松江 天倫寺와 金澤 大乘寺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는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妙法蓮華經』7권본 1부는 大功德主가 資善大夫로서 典瑞院의 宮正司의 宮正이었던 申當住이었지만 道環에 의해서 주관되었고, 동국대학교 박물관소장의 청원사본 충숙왕 11년(1324) 『大方廣佛華嚴經』 제12권 제16권과 제40권 제41권은 金生에 의해 寫書되었지만 주관자는 檀那대사 洪演 永暉이며, 湖巖美術館 소장의 忠肅王 17년(1330)의 『妙法蓮華經』7권본 1부는 鴻山郡 戶長 李臣起에 의해 발원되었으나, 주관자는 正因에 의해서 日本 佐賀縣立博物館 소장의 충숙왕 복위원년(1332) 제작의 『妙法蓮華經』8권본 1부는 鄭士龍 鄭達修에 의해 발원되었으나 棟梁道人은 玄哲이다. 前日本 福祥寺 소장의 충숙왕 복위 5년(1336)의 『大方廣佛華嚴經』 제60권은 比丘 善之와 密直副使 任瑞가 더불어 발원하였다고 적혀있으나 시주자는 密直副使 任瑞일 것이고, 사경의 모든 일에 책임자는 比丘 善之이며, 이 사경이 행해진 절은 奉聖寺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奉聖寺 住持大師가 孜西이며, 禪師 雲其, 禪師 萬一, 緣化比丘 明一등에 의해서 이 사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湖巖美術館 소장의 忠肅王 복위 6년(1337) 『大方廣佛華嚴經』 제31권의 경우는 大府少監同知密直司事 崔道安과 그의 처에 의해 발원되었으나, 이 사경의 일을 맡아 한 인물은 皎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忠肅王 복위 7년(1338) 『大方廣佛華嚴經』 제21권의 경우는 大功德主는 僉義評里를 致仕한 金延과 前慶山縣令을 金臣佐와 妻 李氏이지만, 國一大師 向如와 大禪師 智然등에 의해 사경이 제작되었다고 본다. 國一大師는 「三國遺事」 「前後所將舍利」 조와 「開東楓岳鉢淵叢石記」를 쓴 無極이다. 있다. 日本 佐賀縣立博物館 소장의 충숙왕 복위원년(1332) 제작의 『妙法蓮華經』8권본 1부는 鄭士龍 鄭達修에 의해 발원되었으나 棟梁道人은 玄哲이다.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의 공민왕 2년(1353) 제작의 『妙法蓮華經』7권본 1부는 貞順大夫肅雍府右司尹 朴允珪에 의해 발원되고 金成이 시주자이나, 角甄이 주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북대학교소장의 恭愍王 5년(1356) 寫成된 『首楞嚴經』의 경우, 星山前直講 李邦翰이 시주자이고 해인사주지 信聰이 사경제작의 주무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경은 銀字寫經이므로 金字大藏寫經所에서 만들어졌다는 데에 또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그가 金字大藏寫經所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얻었거나 혹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국대장공주와 왕실의 허용을 받을 수 있었다면 金字院에서 고려국왕발원의 金字寫經과는 달리 銀字寫經의 제작을 허락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神將像이 금니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볼 때, 신장상 등 금니가 사용되는 부분은 金字院에서 전부 그려지고, 경전을 寫書하는 부분은 銀字院에서 쓰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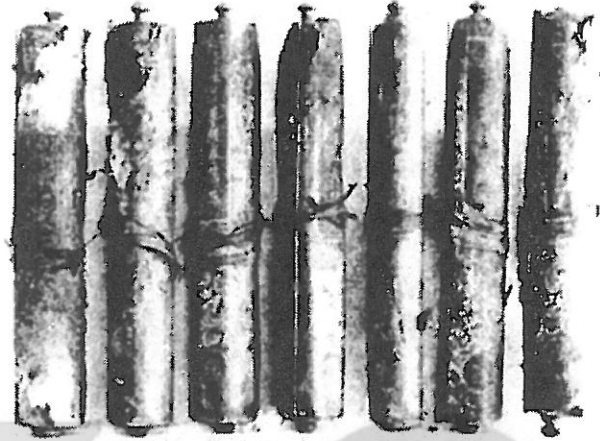
4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廉丞益 발원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사경은 충렬왕 때에 金字院이나 銀字院의 역할과 장소에 대한 상황을 짐작케 하는 좋은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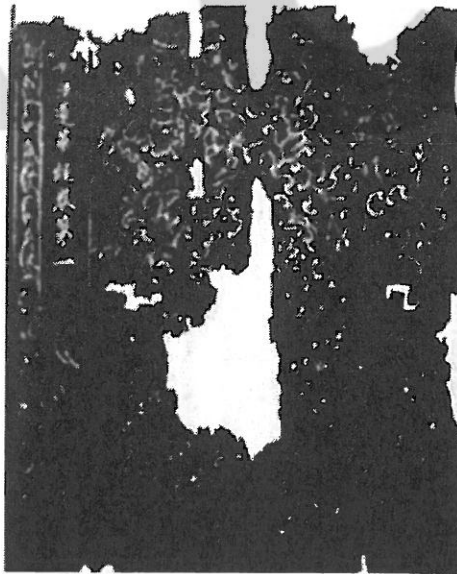
이 사경이 廉丞益이라는 개인에 의해 발원된 사경임에도 불구하고, 1행 14자라는 점이 고려국왕발원 사경과 같고 표지화와 변상에 해당하는 神將像 역시 고려국왕발원의 사경들과 같아 다른 개인발원의 사경과는 완전히 틀린다는 점에 유의해서 볼 때, 이 사경이야말로 충렬왕 7년에 기인 50명을 동원하여 지었던 그의 집을 金字大藏寫經所로 내놓은 후, 이를 빌미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를 자신과 그의 권속들의 복락을 빌기 위해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을 사경자체의 스타일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살폈으며, 고려전기의 사경원은 대찰에 부설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충렬왕 이후 金字院·銀字院에서 金·銀字寫經이 寫成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의미에서 廉丞益 발원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고려전기 寫經院과 충렬왕 이후의 金字院·銀字院의 성격을 밝히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의 보수는 그 어느 유물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중요한 의의는 이미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廉丞益 발원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자료소개와 더불어서 이의 보수와 관리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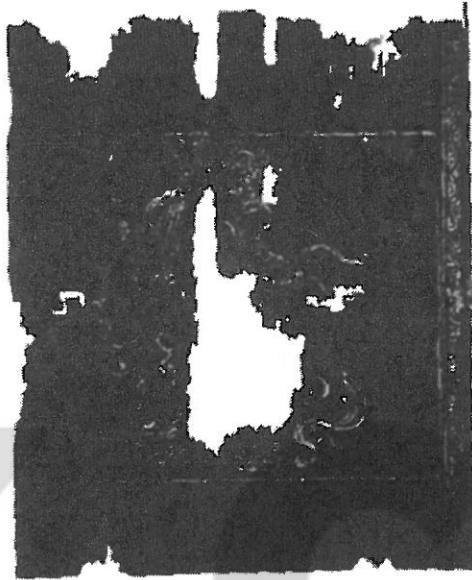
<그림 1> 廉丞益發願의 柑紙銀泥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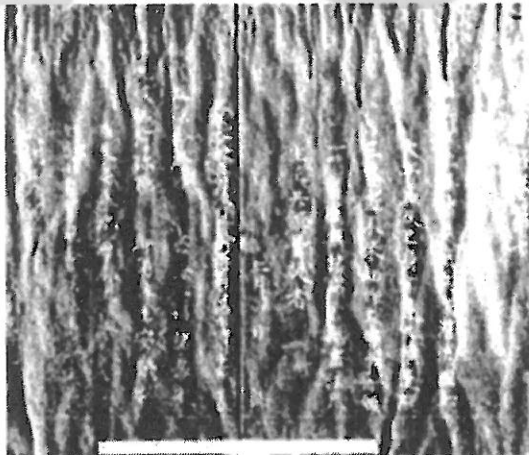
<그림 2> 廉丞益發願의 柑紙銀泥 『妙法蓮華經』 제1권 表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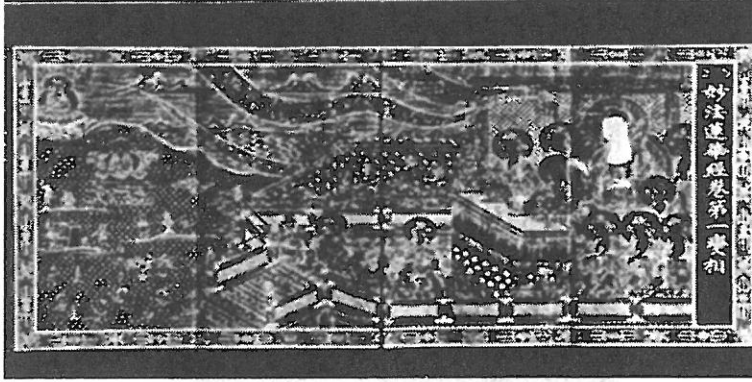
<그림 3> 廉丞益發願의 寫經 『妙法蓮華經』 제1권 神將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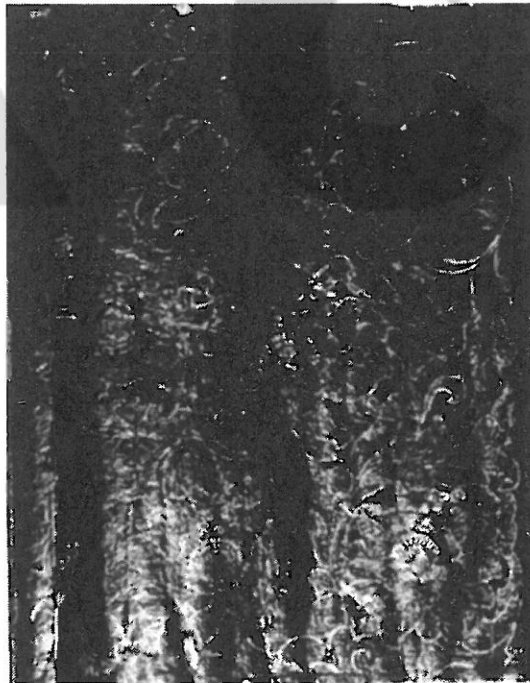
<그림 4> 廉丞益發願의 柑紙銀泥 『妙法蓮華經』 제7권 發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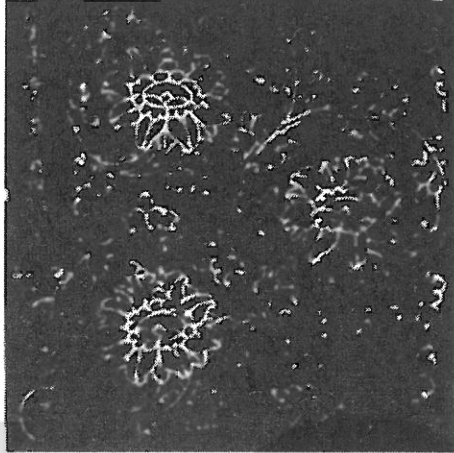
<그림 5> 日本 羽賀寺所藏 『妙法蓮華經』 제1권 변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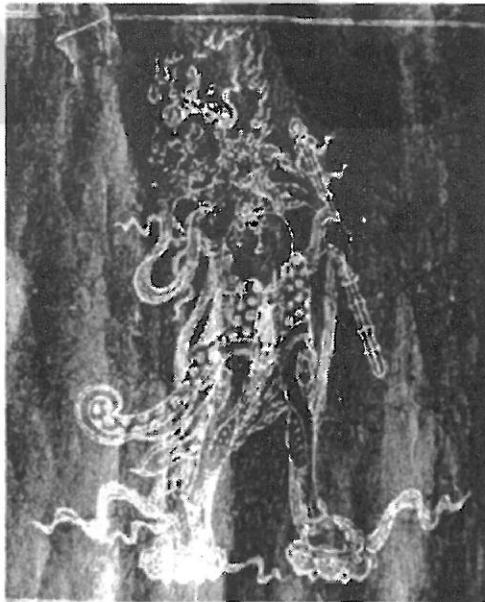
<그림 6> 호암미술관 소장 『不空羂索神變陀羅尼經』 제13권 표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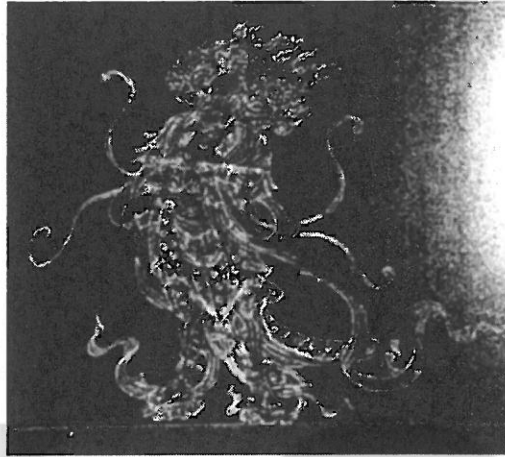
<그림 7> 日本 國立京都博物館 소장 『阿育王太子法益壤目因緣經』 표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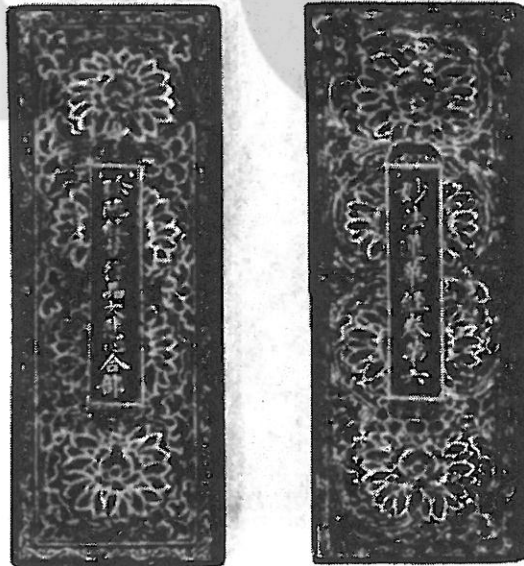
<그림 8> 호암미술관 소장 『不空羂索神變陀羅尼經』 제13권 神將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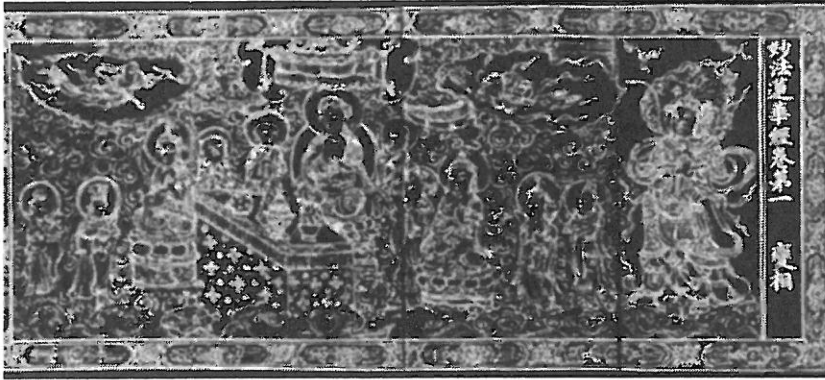
<그림 9> 日本 京都博物館 소장 『文殊師利問菩提經』 神將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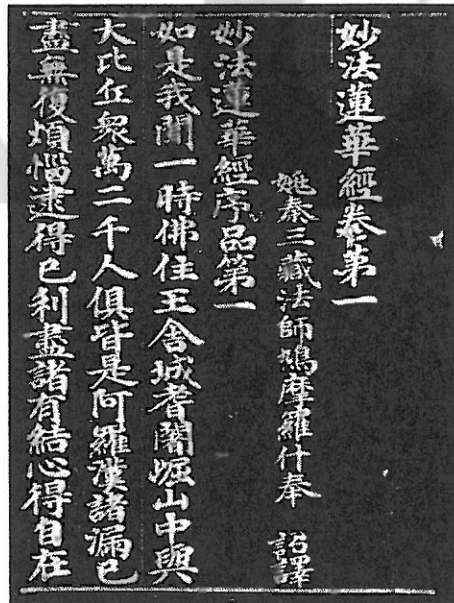
<그림 10> 寶積寺 소장본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와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 표지화



<그림 11> 寶積寺 소장본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와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 번상화



<그림 12> 寶積寺 소장본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와 『阿彌陀經梵行品大悲心合部』 서체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古蹟圖譜』

『國寶』

『松廣寺板 妙法蓮華經續述 제1·2권 합본』

『松廣寺板 金剛般若經疏開玄鈔 제4·5·6권』

吳世昌, 『槿域書畫徵』

權熹耕, 『高麗寫經의 研究』

강진기, 김성우, 권희경, 『송광사』

* 논문접수일 : 2002년 12월 30일

* 논문심사일 : 2003년 1월 15일

к с і